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1, 40-45)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1,40-45

보좌신부 시절에 구역장님과 함께 냉담교우를 방문하러 간 적이 있다. 그러나 그분은 무척 어색해 하며 내가 인사조차 건넬 틈도 없이 급히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거듭 부탁을 해도 이내 반응이 없었다. 대화를 청하는 것이 그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거웠다.

주님께 마음을 열기에는 그분을 누르고 있을 현실적 고통과 상처가 깊게 자리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현대 종교학자이며 철학자인 마틴 부버(M. Buber, Martin)는 인간의 사회성을 '너와 나'의 관계로 해석한 바 있다.

그리스도교적 인간의 공동체적 존재성이 하느님의 창조성에서 연유함을 보더라도, 고유한 인간존재로서의 '너' ('이웃')와 '나'의 상호관계는 삶의 원리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이 관계성의 파괴나 단절은 삶에 중대한 위기로 작용하여 인간 스스로의 실존을 내면으로부터 포기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메마름, 곧 무의미와 절망으로 나타난다. 성경에서 이러한 단절과 절망적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나병환자의 삶이다. 오랜 율법의 관습에 따라 나병은 하느님께 대한 죄의 벌로 간주되었다. 불결한 죄인의 표지를 몸에 달고 있다고 규정되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추방되었다. 온갖 차별과 천대로 소외되고 비인간적인 삶의 굴레에 버려졌다.

그럼에도 복음의 나병환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기를 내어 "스승님께서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르 1, 40) 하고 청한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내었다. 당시의 사회적 인식과 자신의 끔찍한 모습에서조차 포기하지 않은 그의 용기에 한줄기 햇살이 비쳤다. 자기 존재의 소중함만은 버리지 않은 그의 태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만나 치유의 은총을 낳는다. 예수님의 손길은 율법과 관습과 단절의 벽을 넘어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지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선물로 주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마르 1, 41) 예수님께서서는 통념으로 되어 있던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해방을 되찾아 주신다. 그렇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선한 모든 지향에 대하여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다.

봉사는 그리스도를 따라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1고린 10, 31),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는" (1고린 10, 33) 직분이다.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중심에 놓고, 이웃이 안고 있는 단절과 포기의 상태가 희망으로 바뀌도록 꾸준히 마음 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의식하며 활동해야 하겠다. 봉사자가 지녀야 할 영적태도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병든 자도 부정한 자도 아닌 이웃이라는, 언제나 사랑으로 측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수원교구 2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 룯기의 내용과 구조!”

5분 신앙상식

룯기

저자

오랜 세월 전해져 오던 전승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이 책은 역사서로 분류되지만 역사에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룯기를 성문서로 분류합니다.

시대 배경

룯기에서는 판관 시대를 ‘옛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판관 시대보다 상당히 후대에 씌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는 기원전 6세기 유배 이후 당시 근동의 공용어인 아람어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룯기 곳곳에는 이런 영향이 발견 됩니다. 이는 룯기가 쓰인 시기가 유배 이후, 혹은 그보다 상당히 후대였음을 말해 줍니다.

편집목적

저자는 룯과 나오미라는 두 여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나눌 수 있는 애뜻한 신뢰와 존경을 보여 주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율법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룯기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근과 죽음이라는 열악한 상황이 그려지면서 룯과 나오미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룯은 이민족 여인이지만 남편이 죽어 없는데도 나이 든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는 효성 지극한 며느리였습니다. 결국 하느님과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룯은 이스라엘의 위해한 임금 다윗의 증조모가 됨으로써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룯기에는 이스라엘 고유의 풍습들이 소개됩니다.

공지사항

-2월 18일(수) 새 학기를 개강하는 성경공부(여정첫걸음)에 꼭 참여 합시다.

-2월 25일(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 됩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이 있습니다.

사순시기동안 매 금요일 십자기의 길 기도에 적극 참여 합시다.

요한 2,13-25

다음 달 성경말씀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 당신은 하느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정치적, 사업상, 인격수양, 친교 목적 등등..)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열마오 제 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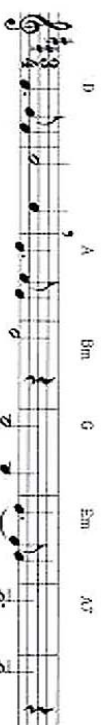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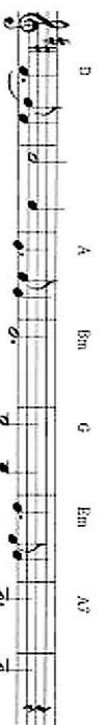
가도하며... 저서 원 정 수
작곡 현 정 수



하느님 백 성 자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일렬 무 아 -



중 - 기 하 고 공 사화 자 세 상 모 두에 게 -



마 음 모 - 아 기도하 고 함께 나 가자 천국 으 로 -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